

opusdei.org

# 4월 19일, 주님 수난 성 금요일

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.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...

2019-4-18.

## 요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. 18,1—19,42

<중략>

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.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.

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'해골 터'라는 곳으로 나가셨다.

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.

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.

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.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,

거기에는 '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'라고 쓰여 있었다. 예수님

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, 많은 유대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.

그것은 히브리 말, 라틴 말,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.

그래서 유대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.

“유대인들의 임금’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, ‘나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.’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.”

빌라도가 대답하였다.

“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.”

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,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몫씩 차지하였다.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.

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.

“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.”

“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.”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.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.

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,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.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,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.

“여인이시여,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.”

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.

“이분이 네 어머니시다.”

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.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

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.

“목마르다.”

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.

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

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. 예수님께서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.

“다 이루어졌다.”

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.

<중략>

## 묵상

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의 설명서(지침서)는 십자가상이라고 말했습니다.

우리는 확실히 모든 궁금증의 답과 모든 덕행의 표본,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십자가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.

오늘 저는 당신의 수난을 천천히, 꼼꼼하게, 자세하게 관상하고 싶습니다.

당신의 머리에는 가시로 인해 피가 흐르고 있고, 당신의 두 눈은 부풀어 올랐으며, 당신의 두 볼은 구타로 인해 멍이 들어 있습니다.

당신의 입술은 말라 찢어져 있고, 당신의 턱수염은 잡아당겨져 있습니다. 당신의 얼굴은 피로 범벅되어 있고, 땀과 침이 흐르고 있으며 당신의 겹옷은 찢겨졌습니다.

당신의 두 팔의 근육은 튀어나오고  
뼈는 부러졌고, 숨은 헐떡거리면서  
두 발은 뚫렸으며 당신의 무릎 두쪽  
에도 멍이 들었습니다...그리고 신체  
적인 고통보다도 저는 윤리적으로 더  
신경 쓰입니다.

당신의 친구, 유다의 자살. 당신 제자  
들이 숨고, 사람들이 당신을 모욕하  
며, 웃으면서 조롱합니다.

“복된 성체성사는 주님의 수난의 가  
장 완벽한 성사입니다. 왜냐하면 성  
체성사는 그리스도 당신 자신과 당신  
의 수난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.” (성  
토마스 아퀴나스)

저의 주님, 너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 
고통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저  
는 저의 고통과 미사 성제 동안에 당  
신을 위로해드릴 수 있습니다, 그것  
은 바로 저의 어머니이자 당신의 어  
머니께서 하시는 것이면서 요한과 마  
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클로파스의 아  
내 마리아가 하는 것 입니다, 그리

고...저도 그들과 함께 당신을 위로합니다.

I pray 번역 원문 : George Boronat  
신부

번역 : 정 대영 요셉

....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 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 
4weol-19il-junim-sunan-seong-geumyoil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4weol-19il-junim-sunan-seong-geumyoil/)  
(2025-3-27.)